

# 기록이 만든 기적 4편

---

매년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법

Junki

2024

기록이 만든 기적 4편

매년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법

목차

프롤로그: 3년 차의 깨달음

13부. 피타고라스 정리, 3년간의 진화

첫 해의 참패

기록이 바꾼 두 번째 해

3년 차, 완성된 수업

14부. 체육대회의 아이스크림

매년 반복되는 실수

“내년의 나에게” 편지

드디어 녹지 않은 아이스크림

15부. 학부모 상담 주간의 비밀 무기

30명 상담, 30시간 준비?

1년 기록이 만든 5분 준비

학부모가 놀란 순간

16부. 수학여행 전날의 기적

전날 밤의 악몽

3년 치 체크리스트

처음으로 여유로운 아침

에필로그: 경력이 쌓이는 교사

나만의 백과사전 구축하기

마지막 한 마디

## 기록이 만든 기적 4편

---

매년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법

**Junki** 지음

# 기억을 잇다, 교실을 읽다 교사를 위한 옵시 디언 완전 가이드 시리즈

## 목차

- **프롤로그: 3년 차의 깨달음**
- **13부. 피타고라스 정리, 3년간의 진화**
  - 첫 해의 참패
  - 기록이 바꾼 두 번째 해
  - 3년 차, 완성된 수업
- **14부. 체육대회의 아이스크림**
  - 매년 반복되는 실수
  - “내년의 나에게” 편지
  - 드디어 녹지 않은 아이스크림
- **15부. 학부모 상담 주간의 비밀 무기**
  - 30명 상담, 30시간 준비?
  - 1년 기록이 만든 5분 준비
  - 학부모가 놀란 순간

- **16부. 수학여행 전날의 기적**

- 전날 밤의 악몽
  - 3년 치 체크리스트
  - 처음으로 여유로운 아침
- **에필로그: 경력이 쌓이는 교사**
- 

"기록하지 않은 교사는 매년 1년 차다. 기록하는 교사는 매년 경력이 쌓인다."

---

## 프롤로그: 3년 차의 깨달음

---

교직 1년 차, 나는 모든 것이 처음이었다.

피타고라스 정리 수업. 체육대회. 학부모 상담. 수학여행.

2년 차, 나는 또 모든 것이 처음이었다.

“작년에 뭘 했더라?” 기억이 안 났다. 결국 처음부터 다시 준비했다.

3년 차, 나는 깨달았다.

기록하지 않으면, 경력은 쌓이지 않는다.

10년 차 교사도 기록이 없으면 매년 1년 차처럼 시작한다. 3년 차 교사도 기록이 있으면 3년 치 경험 위에서 시작한다.

이번 이야기는 내가 어떻게 ‘매년 처음부터 시작하는 교사’에서 ‘매년 쌓아가는 교사’가 되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 13부. 피타고라스 정리, 3년 간의 진화

---

첫 해의 참패

2024년 5월, 중2 수학. 피타고라스 정리  
단원.

나는 열심히 PPT를 만들었다. 공식 설명,  
예제 풀이, 연습 문제. 완벽한 강의식 수업.

결과는 참담했다.

2024.05.12 - 피타고라스 정리  
수업 - 방식: *PPT* 강의 - 결과:  
**★★** (5점 만점) - 문제점: 10분  
만에 애들 졸기 시작. "선생님, 이

거 왜 배워요?” 질문에 답 못함. -

반성: 공식만 가르치니까 재미없었음

그때는 그냥 “수업 망했다”로 끝났다. 기록은 했지만, 다음 해에 어떻게 바꿀지는 생각 못 했다.

## 기록이 바꾼 두 번째 해

2025년 5월, 다시 피타고라스 정리.

작년 기록을 열었다. “PPT 강의 → 10분 만에 졸음 → ★★”

같은 방식은 안 된다. 그래서 바꿨다.

유튜브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활동’을 검색했다. ‘보물찾기 활동’이라는 게 있었다. 교실 곳곳에 좌표를 숨기고, 피타고라스 정리로 거리를 계산해서 보물을 찾는 활동.

2025.05.14 - 피타고라스 정리  
수업 - 방식: 보물찾기 활동 - 결과:  
 - 좋았던 점: 애들  
집중 잘함. "선생님, 다음 시간에  
도 이거 해요!" 반응. - 아쉬운 점:  
줄자가 부족해서 모둠별로 돌려  
씀. 시간 지연. - 다음에: 줄자 모  
둠 수만큼 준비할 것.

이번엔 달랐다. “다음에” 섹션을 추가했다.

### 3년 차, 완성된 수업

2026년 5월, 세 번째 피타고라스 정리.

작년 기록을 열었다.

- 2024년: PPT 강의 →  (실패)
- 2025년: 보물찾기 →  (성공, 단 줄자 부족)

올해는 줄자를 미리 준비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추가했다. 디지털 지도 앱으로 실제 학교 운동장 좌표를 활용하는 것.

2026.05.13 - 피타고라스 정리  
수업 - 방식: 보물찾기 + 디지털  
지도 - 결과: ★★★★★★+ - 좋았  
던 점: 실제 운동장 좌표 사용하니  
"와, 진짜 수학이 쓰이네!" 반응. -  
학생 피드백: "수학 시간 중 제일  
재밌었어요."

3년간의 기록이 쌓였다.

2024년: 강의식 → ★★ (실패)



2025년: 보물찾기 → ★★★★★★ (성공)



2026년: 보물찾기 + 디지털 → ★★★★★★+ (완성)

기록이 없었다면?

2026년에도 “피타고라스 정리 어떻게 가르치지?” 하며 처음부터 고민했을 것이다. 기록이 있었기에, 2년간의 시행착오 위에서 시작할 수 있었다.

## 14부. 체육대회의 아이스크림

---

매년 반복되는 실수

체육대회. 교사에게는 전쟁 같은 날이다.

2024년 체육대회. 나는 반 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준비했다. 아이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다.

문제는 타이밍이었다.

오전 10시에 아이스크림을 받았다. 간식 시간은 오후 1시. 3시간 동안 아이스크림은 녹아내렸다.

“선생님, 이거 아이스크림이에요? 우유예요?”

아이들의 실망한 표정.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내년엔 절대 이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2025년 체육대회.

또 아이스크림을 준비했다. 또 오전에 밭았다. 또 녹았다.

“선생님, 작년이랑 똑같아요!”

그제야 깨달았다. 다짐만으로는 안 된다. 기록해야 한다.

## “내년의 나에게” 편지

2025년 체육대회가 끝난 그날 저녁, 나는 읍시디언을 열었다.

# 체육대회 매뉴얼

## 📆 2025년 기록

-  
-

-

## ## 🎉 내년의 나에게

1.

2.

3.

“내년의 나에게” 섹션. 이게 핵심이었다.

행사 당일에 느낀 깨달음은 일주일만 지나면 잊혀진다. 그날 바로 적어야 한다.

드디어 녹지 않은 아이스크림

2026년 체육대회 일주일 전.

나는 옵시디언에서 [[체육대회]] 노트를 열었다.

“내년의 나에게” 섹션이 눈에 들어왔다.

1. 아이스크림은 간식 시간 **30분**  
전에 수령할 것!

“아, 맞다!”

올해는 달랐다. 아이스크림 업체에 전화해  
서 오후 12시 30분 배송을 요청했다.

체육대회 당일. 오후 12시 30분에 아이스  
크림이 도착했다. 오후 1시에 아이들에게  
나눠줬다.

“선생님, 이거 진짜 아이스크림이에요! 안  
녹았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아이스크림을  
먹인 순간이었다.

기록이 없었다면?

2026년에도 “아이스크림 몇 시에 받지?”  
하며 또 오전에 받았을 것이다. 기록이 있었  
기에, 2년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

# 15부. 학부모 상담 주간의 비밀 무기

---

**30명 상담, 30시간 준비?**

4월, 학부모 상담 주간.

30명의 학부모를 만나야 한다. 각 15분씩.  
총 7시간 30분의 상담.

문제는 준비 시간이었다.

2024년, 나는 상담 전날 밤을 새웠다.

“1번 강도현... 뭐 말하지? 음... 교우관계가  
좀 그렇고...” “5번 김민준... 화장실 자주 가  
는 애였나? 아니 그건 다른 애였나...”

30명의 학생에 대해 기억을 더듬으며 메모  
를 작성했다. 한 명당 30분. 총 15시간.

상담 당일, 나는 좀비 같은 얼굴로 학부모를 맞이했다.

## 1년 기록이 만든 5분 준비

2026년 4월, 다시 학부모 상담 주간.

이번엔 달랐다. 1년간 기록이 쌓여 있었다.

상담 전날, 옵시디언을 열었다.

검색창에 '강도현'. 1초.

- 3월 14일: 점심시간 류승민과 다툼
- 3월 20일: 개별 면담, 가정환경 파악
- 4월 15일: 체육 시간 안정적
- 5월 15일: 스승의 날 편지 "성격 고치고 싶어요"

1년간의 여정이 한눈에 보였다.

검색창에 '김민준'. 1초.

- 3월 7일: 화장실빌런 시작
- 3월 21일: 영어 시간 회피 패턴 발견

4월 5일: 개별 면담, 듣기 불안 파악  
5월 9일: "오늘 안 무서웠어요!" 첫 성공

한 명당 5분. 30명 × 5분 = 2시간 30분.

**15시간이 2시간 30분으로 줄었다.**

학부모가 놀란 순간

상담 당일.

강도현 어머니가 오셨다.

"선생님, 도현이 학교에서 어때요?"

나는 옵시디언 노트를 보며 말했다.

"어머니, 3월 초에는 교우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3월 14일에 친구와 다툼이 있었고, 3월 20일에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 도현이가 '집에서 아빠가 소리 지르면 몸이 굳어요'라고 말했어요."

어머니 표정이 굳었다.

“그 후로 접근 방식을 바꿨어요. ‘왜 싸웠어?’가 아니라 ‘그 순간 공격받는 느낌이 들었어?’라고 물었더니, 도현이가 마음을 열었어요. 5월 15일 스승의 날에는 ‘성격 고치고 싶어요’라는 편지를 췄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였다.

“선생님... 이렇게까지 봐주셨군요. 저도 몰랐던 걸 선생님이 아시네요.”

기록이 없었다면?

“도현이 요즘 괜찮아요. 좀 그랬는데 나아졌어요.” 이 정도가 전부였을 것이다. 기록이 있었기에, 1년간의 성장 스토리를 전할 수 있었다.

## **16부. 수학여행 전날의 기적**

---

### 전날 밤의 악몽

수학여행. 교사에게는 1년 중 가장 긴장되는 행사다.

2024년 수학여행 전날 밤.

나는 잠을 못 잤다.

“학생 명단 출력했나? 비상 연락망은? 멀미 약은? 우산은? 간식은? 버스 좌석 배치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뭔가 빠뜨린 것 같은 불안감.

결국 새벽 3시까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피곤한 몸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다.

돌아와서 깨달았다. 멀미약을 안 챙겼다.  
버스에서 3명이 토했다.

## 3년 치 체크리스트

2025년 수학여행이 끝난 후, 나는 옵시디  
언에 기록했다.

# 수학여행 매뉴얼

## ┌ 체크리스트

### D-7 (일주일 전)

- [ ]
- [ ]
- [ ]
- [ ]

### D-1 (전날)

- [ ]
- [ ]
- [ ]
- [ ]

### D-Day (당일 아침)

- [ ]

- [ ]
- [ ]

2026년 수학여행 전날.

나는 옵시디언에서 [[수학여행]] 노트를 열었다.

체크리스트가 있었다. 하나씩 체크했다.



학생 명단 최종 확인



비상 연락망 출력



멀미약 구입 ( $30\text{명} \times 2 = 60\text{개}$ )



버스 좌석 배치 (멀미 학생 앞자리)

처음으로 여유로운 아침

2026년 수학여행 당일 아침.

나는 7시에 일어났다. 충분히 잤다.

체크리스트는 이미 전날 다 완료했다. 오늘 아침에 할 일은 출석 체크와 멀미약 배포뿐.

버스에서 아이들에게 멀미약을 나눠줬다.  
미리 파악한 멀미 학생 5명은 앞자리에 앉혔다.

수학여행 내내 아무도 토하지 않았다.

돌아오는 버스에서, 옆 반 담임 선생님이 물었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잘 하세요?  
저는 매년 뭔가 빠뜨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3년 치 실수가 쌓여 있거든요. 그 실수들이 체크리스트가 됐어요.”

기록이 없었다면?

2026년에도 전날 밤 새벽까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뭔가를 빠뜨렸을 것이다. 기록이 있었기에, 3년간의 실수가 완벽한 체크리스트가 되었다.

# 에필로그: 경력이 쌓이는 교사

---

교직 3년.

나는 깨달았다.

경력은 시간이 아니라 기록으로 쌓인다.

10년 차 교사도 기록이 없으면: - 매년 “피타고라스 정리 어떻게 가르치지?” 고민 - 매년 체육대회 아이스크림 녹임 - 매년 학부모 상담 전날 밤샘 - 매년 수학여행 전날 불안

3년 차 교사도 기록이 있으면: - “피타고라스 정리는 보물찾기가 최고” 확신 - 체육대회 간식은 30분 전 수령 - 학부모 상담 준비 2시간 30분 - 수학여행 체크리스트 완비

---

## 나만의 백과사전 구축하기

영역	노트 예시	쌓이는 것
수업	[[피타고라스 정리]], [[이차방정식]]	연도별 수업 방식, 성공/실패 기록
행사	[[체육대회]], [[수학여행]]	체크리스트, “내년의 나에게”
상담	[[학부모 상담]], [[진로 상담]]	상담 기법, 성공 사례
업무	[[가정통신문]], [[기안문]]	상용구, 템플릿

## 마지막 한 마디

"오늘의 실수를 기록하면, 내년의 성공이 된다."

피타고라스 정리 수업이 망했다면, 기록하세요. 체육대회 아이스크림이 녹았다면, 기록하세요. 수학여행에서 뭔가 빠뜨렸다면, 기록하세요.

그 기록들이 모이면, 당신만의 교사 백과사전이 됩니다.

기록하지 않은 교사는 매년 **1년** 차입니다.  
기록하는 교사는 매년 경력이 쌓입니다.

오늘, 당신의 실수를 기록하세요. 그것이 내년의 당신을 구할 것입니다.

---

이 에세이에 등장하는 인물, 사례, 장소, 시간 등은 모두 교육적 이해를 돋기 위해 구성된 가상의 내용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

### 기록이 만든 기적 4편

매년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법

저자: Junki

시리즈: 기억을 잇다, 교실을 읽다 - 교사를 위한 옵시디언 완전 가이드

© 2024 Junki.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재 할 수 없습니다. 교육 목적의 인용은 출처를 밝히면 가능합니다.